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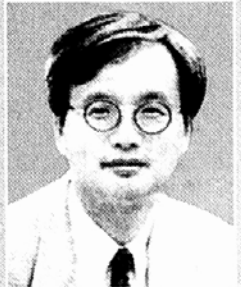


◇통일은 먼 훗날의 일이 아니다. 남과 북은 서로의 다음을 받아들이고, 지금부터 더불어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한다. 사진은 91년 10월30일 미국 LA 관음사에서 봉행한 조국통일기원 불교도 합동법회. 분단 이후 남·북·해외 불교지도자들의 첫 만남이었다.



고유환 교수

“ 서로 다름 인정
동질성 찾아가면
통일 후유증 감소 ”



권혁범 교수

“ ‘통일불사 선점’
불교 단체인 경쟁
종교 보일리 없다 ”

가 사회 저변층을 형성하면서 사회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북한 주민의 패배의식은 남·북 간의 지역감정으로 비화하여 민족 통합은 100년 이상 소요될 것이다. 둘째, 북한 군부와 지배계층이 체재공과 시점에서 돌발적인 전장을 감행할 위험이 있다. 또한 북한 지배층의 일부 중국 망명과 중국 정부의 개입으로 한·중간 외교 갈등이 동북아의 정세에 큰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셋째, 민족사의 정립에 있어서 독립운동사와 분단사가 남한 중심으로 기록됨으로써 역사가 왜곡될 것이다.

그러므로 남한은 북한을 지원하고, 북한정부는 개혁·개방을 통하여 체제의 개선을 이루어야 한다. 남북이 화해와 협력을 통한 점진적 통일로 나아가는 것이 통일비용을 최소화하고 통일 후유증을 없애며 통일의 상승 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다.

고유환 : 우리 민족은 지난 반세기 이상 분단체제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민족'과 '사회주의 민족'으로 각각 둘로 나뉘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남북한 동질성 회복의 출발은 원효의 가르침에 따라 우선 남북한이 서로 다름에 대해 인정해야 한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을 때 갈등은 심화되고 흡수통일논리가 나오게 된다. '다음은 같음'이 있으므로 형성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우리 민족의 새로운 삶의 원리를 찾아 동질성을 회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교계 대북전문가 부족

▲불교계의 대북불교교류에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종단간, 종단과 대북불교교류 단체인 협조와 경쟁의 바람직한 긴장 관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권혁범 : 불교단체간의 단일한 목소리를 기대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통일문제를 불교라는 종교의 전파 및 확산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소승적 자세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보편적 가치를 확산하는 통일이 불교가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결국 종교 및 사상의 자유와 영적 깨달음을 추구하는 개인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고 크게 보아 그것이 결국 불교의 원리에 합치되는 것이라는 느긋한 관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일부 기독교인들의 소승적 선교 운동이 갖는 배타성과 한계를 항상 의식해야 한다.

지현 : 전문가의 부재도 큰 문제다. 북은 20년간 같은 얼굴들이 남북 교류의 파트너로 나오는데, 남쪽은 매번 사람이 바뀌니 지속적이고 허심탄회한 대화가 안된다. 이론적인 문제보다 아직은 현실적인 각도에서 북한불교를 대할 때 교류의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

법륜 : 종단협의회 차원에서 교류해야 할 것과 각 종단이 교류해야 할 것, 각 단위원이 교류해야 할 것에 대한 방침이 없어서 혼선을 빚고 있다. 즉 조별연과 상의해서 남북 불교도의 통일연원과 불교 진흥을 위한 일은 종단협의회에서 해야 하고, 대북 지원은 각 종단 또는 각 단체가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 그래야 각 종단과 단체가 대북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뿐만 아니라 교류의 내용이 다양해진다. 북한의 21개 시·군에 대한 현황 파악과 불교 포교에 대한 정책이 전문함으로써 북한주민에 대한 불교적 영향력이 떨어져 앞으로 통일 국가 내에서 종교적 열세와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대북한 포교에 대한 장·단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해야 한다.

고유환 : 이제 불교계는 통일기원의 차원을 넘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동을 통해서 통일 노력을 구체화시켜 나가야 한다.

향후 남북 불교교류는 교리를 앞세우기보다는 문화·학술 교류를 중심으로 접근해나가야 할 것이다. 남북 불교교류의 초점은 북한 불교의 자생력을 키워 민족정서의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북한 주민들이 불교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법타 : 남한 불교계의 파트너인 조별련은 북한 내에서 영향력이 크지 않다. 이 점이 교류의 한계로 다가온다. 북한 내 사찰의 복원, 병원 등 구호시설의 설립 등의 사업을 조별련을 파트너로 하여 가능할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북한 내 조별련의 위상강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대북교류를 하며 타종단이나 단체는 불가고, 자기 종단만이 우선적이고 대표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버려야 한다.

정리=정성운 기자 (swjung@buddhopia.com)

화해와 상생 '통일 화두'

정천구(영산대 총장)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 역사에 있었던 두 번의 통일은 모두 불교사상과 정신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신라의 삼국통일과 고려의 후삼국 통일이 그것이다. 신라 통일의 견인차 역할을 한 화랑도는 미륵정도의 구현을 목표로 하여 젊은이들의 상무(尙武) 정신과 애국심을 선양하였으며, 원광법사의 세속오계로 지도되었다. 또한 자장, 원광을 거쳐 원효에 의해 일심(一心)사상과 화평(和靜)사상으로 집대성된 신라불교가 삼한을 아우를 수 있는 통일의 사상적 기초를 제공하였던 것이다.

삼국통일의 힘 '불교'

고려의 통일 역시 미륵을 자처하고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고자 후고구려를 연 공예를 이어 받아 도선 대사의 지도를 받은 고려 태조 왕건의 불교적 이념과 포용력 그리고 진취적 정신에 의해 가능했던 것이다.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을 낳은 평양방문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김대중 대통령은 귀국 보고에서 이제 남북한은 55년간의 대립과 불신의 시대를 끝내고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진입했다고 선언하면서, "남북한 관계는 한쪽이 이기고 다른 쪽은 지는 그런 관계를 벗어나 양쪽이 다 함께 이기는 윈윈 전략(win-win strategy)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바로 우리 민족이 불교정신을 중심으로 발전시켜온 화해와 상생(相生)의 철학과 부합하는 발상이라고 볼 수 있다.

오늘과 같은 다종교 시대에 불교가 지난 민족사에서 두 번의 통일에서와 같은 중심적 역할을 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민족 재통일과정에서도 통일의 철학과 그 방안은 불교적 정신을 기초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선 통일의 기본 철학에 있어서 남북한은 서로 상대를 인정하고 민족내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6.25 전쟁과 긴 냉전의 역사에서 증명된 것처럼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부정하고 자기중심적이고 획일적으로 통일하기는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

다양성 인정 하나되게

의상(義湘)의 화엄일승법계도(華嚴一乘法界圖)에서 표현된 대로 통일은 "하나 속에 여럿이 있고 여럿 속에 하나가 있는(一中一切 多中一)" 그런 다양성 속의 통일이어야지 획일적인 하나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데올로기적이고 교조적인 통일은 불교의 이념에 맞지 않다. 원효의 십문화평론(十門和靜論)도

백가지 쟁론이 각각 이유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일심 속에서 융섭하는 다원적 통일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 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은 서로를 이해하고 관용의 정신을 키워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다원성을 하나로 포섭할 수 있는 정신적 공통성은 발견되고 발전되어야 한다. 신라와 고려가 화평과 상생의 정신으로 통일을 이룩하고 사회통합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가 나누어져 있어도 불교라는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미국과 일본 사회가 다원화되어 있으면서도 통합을 이룩하고 있는 것은 각각 신도(神道)와 기독교 문명이라는 공통 요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본다. 세계적 강국인 4개국의 영향 속에서 우리 민족이 다원주의에 기초한 통일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민족 고유의 공통성을 바탕으로 강력한 응집력을 가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군사적 긴장완화 시급

이데올로기적으로 대립되고 종교적으로 갈라져 있는 현재의 남북한 사회 속에서 그런 공통분모는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가. 민족의 공동언어와 습속에서 공통의 단락을 찾는 것 이외에 국조 단군을 공통의 단락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한다. 이데올로기적으로 대립되고 종교적으로 갈라져 있는 현재의 남북한 사회 속에서 그런 공통분모는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가. 민족의 공동언어와 습속에서 공통의 단락을 찾는 것 이외에 국조 단군을 공통의 단락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한다.

끝으로 한민족의 재통일은 평화적 통일이어야 한다. 불교는 실천철학자 아스퍼스가 지적한 것처럼 역사상 종교전쟁을 치르지 않은 유일한 종교로 평화적이다. 오늘과 같은 고도 무기 시대에 민족의 멸망을 가져올 전쟁은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남북 정상간의 6.15 공동선언 이후 전개되고 있는 남북관계의 발전을 보면서 가장 시급한 것은 군사적 긴장완화라고 생각된다.

남북한 당국자가 진정으로 평화통일을 원한다면 무기를 넘어 정기와 보습으로 만들고 군사비에 쓸 돈을 주민의 복지를 위해 돌려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구태여 수십만 톤의 식량을 상대측에게 지원할 필요도 없고, 군비와 무상화 사업에 막대한 돈을 쓰면서 남한과 외국으로부터 식량을 구걸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특별기고 불교사상으로 통일문제 풀자

를 가로막고 있는 과중한 군사비 부담해결과 남북 경협활성화 등을 우선적으로 풀어간다면 후유증보다는 득이 더욱 클 것이다. 권혁범 : 독일의 예서 드러나듯 후유증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지금부터 남과 북이 더불어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한다. 그것은 미래의 북한 주민에 대한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수많은 이웃들, 특히 사회적 약자로 불리는 가난한자, 장애인, 노인, 어린이, 외국인 노동자, 성적 정체성이 다른 사람, 탈북자 등 그리고 사상과 종교가 다른 사람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연습이다. 타자와의 '차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타자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세계관, 제도, 문화가 요구된다. 이런 차원에서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는 남한사회에서 관념적인 통일교육이 아니라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문제이다. 인간의 존엄성과 개개인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가 될 때 후유증은 최소화될 수 있다. 온갖 편견과 인권 침해가 일상적으로 지배하는 현재의 남한사회가 이대로 북한을 통합한다면 그 결과는 끔찍할 것이다. 법륜 : 만약에 북쪽이 붕괴되고 흡수통일이 되었을 때, 발생할 후유증은 첫째, 북한 주민은 대다수

Advertisement for 'Buddhist Life' (불교 생활화의 길잡이) by Modern Buddhism (현대불교). It features a large number '6' and the title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Daehan-bulgyo Jo-gye-jong Bong-un-sa). The text promotes Buddhist education and community activities, listing '조실석주 주지원혜' as the main figures. It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135-090 서울 강남구 삼성동 73번지, 중무소 02-511-6070,4, 팩스 02-544-2141.

Advertisement for Dongguk University (동국대학교) celebrating its 100th anniversary. It features the text '부처님의 혜명과 불자들의 원력으로 세워진 동국대학교 참사람 육성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We will do our utmost to raise true people of Dongguk University, built by the wisdom of Buddha and the devotion of Buddhists). It lists various university facilities and programs, and includes the names of the president (Ryu Eun-gu) and vice president (Song Seok-gu).